

민주 도당, “내란수괴尹 구속” 결의

“국민의 준엄한 심판의 외침”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 국회의원)이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조속히 구속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13일 오전 11시, 도당 컨퍼런스룸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촉구하며 구속을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행사에서는 각급위원회 위원장, 운영위원, 부위원장, 대변인단 등 전북특별자치도당 주요 정무직 당직자에 대한 임명장이 수여되었으며, 새롭게 임명된 이들은 “지역사회 발전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임명장 수여 후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결의대회에서는 참석자들은 손피켓을 들고 단상에 올라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하라”,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하라”, “내란방탄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의 길을 함께 걸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에서 이원택 위원장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을 촉구했다.

이 행사는 단순한 외침을 넘어, 관저에 숨어 국민 앞에 나서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분노와 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직무를 유기하지 말고, 법원이 발부한 합법적인 체포영장이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경

호처에 협조를 요청하라는 지시를 내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체포영장은 국민의 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과정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를 방해하거나 책임을 회피한다면 이는 국민과 법치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며, “즉시 경호처에 협조 요청을 지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규탄받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의대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국민의 분노와 정의 실현의 요구가 결집된 자리였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만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3일 오후 2시 20분에 도당 컨퍼런스룸에서 제3차 상무위원회와 함께 전북정책비전센터·전북민생지원센터의 현판식을 진행하며 새로운 도약의 시작을 알렸다.

정책 비전·민생 해결의 거점

민주 도당, 전북정책비전센터·민생지원센터 현판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 국회의원)은 13일 오후 2시 20분에 도당 컨퍼런스룸에서 제3차 상무위원회와 함께 전북정책비전센터·전북민생지원센터의 현판식을 진행하며 새로운 도약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현판식은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정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두 센터를 설립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정책 및 민생 해결의 거점으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이원택 도당위원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인 정현을 익산시장, 전북시·군 의회의장협의회장인 남관우 전주시장, 우범기 전주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와 김보금 전북민생지원센터장, 이동기 전북정책비전센터장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의원, 기초의회의장단, 주요 정무직당직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정책비전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플랫폼으로,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각 시·군 정책 담당 부서, 시민사회, 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도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민생지원센터는 생활 밀착형 문제 해결과 민생 현안 대응을 주요 목표로 설립됐다. 직능단체 및 민간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도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꾀하며, 일상적인 민원 해결과 현장 간담회를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을 위한 정권교체에 앞장설 것”

조국혁신당 도당, 새해 다짐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은 윤석열 탄핵을 계기로 “전북을 위한 정권교체가 되도록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앞장서겠다”고 천명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은 13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에는 윤석열을 탄핵하고 새로운 민주정부가 탄생하도록 조국혁신당이 예인선이 되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도상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당직자는 “2025년 새해를 맞아 대한민국의 위기를 해결하고 전북의 희망을 되살리는 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맨 먼저 정 위원장은 “윤석열 탄핵하고 새로운 민주정부가 탄생하도록 예인선이 되겠다”고 말하며,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내란은 분단체제를 이용하여 검찰독재에서 신군사독재로의 전격적 전환을 시도한 것이 본질이다.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가 실패하자, 대한민국 국군을 동원해 청구공항이나 사드기지 등 대한민국의 주요 시설을 폭파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분단체제의 혼란을 극단적으로 일으키고자 계획했다고 추정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윤석열 탄핵 사태에 대해 “본질적으로는 분단체제를 작동시켜 국외의 영구집권을 꿈꾸는 망상자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끊임없이 혼란을 부추키는 것이 이 위기의 핵심이다.”고 말하며 “며칠 전에는 국민의 힘 국회의원이 소위 반공청년단과 그 예하 조직인 백골단까지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주선하는 끔찍



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신군사독재 전환 시도가 본질... 파면돼야”尹 계엄 비판

“사회권 선진국 등 비전 제시 새 민주정부 탄생 예인선 역할”

한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분단 체제의 유령이 실제로 드러난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와 시민의 집결된 힘이 분단체제의 유령들과 분단체제에 기생한 일부 기득권자들과 정치집단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원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조기대선을 치르게 된다”며, “조기 대선에서 새로운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정권교체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만큼 안심하지 않고 조국혁신당은 ‘사회권 선진국’과 ‘제7공화국’의 비전을 제시하며, 새로운 민주정부 탄생의 예인선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전북도당에서는 “전북을 위한 정권교체가 되도록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앞장서겠다”며, “새로운 민주정부는 전북을 위한 민주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전북”이라고 말하며, “세계스카우트잰버리대회의 실패는 윤석열 정권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전북에 그 책임을 전가하며, 이를 빌미로 전북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하며, “윤석열 정부는 이제 2월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며, 재생에너지를 통해 새만금을 한국판 뉴딜의 중심으로 조성하겠다는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기본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며 타당하다. 2021년 새만금 기본계획은 전북이 산업화 시대의 저발전준을 뛰어넘어, 기후위기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기회의 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더욱이,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시행으로 전북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새로운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었다.”며, “특별회계 신설 등 과감한 재정 분권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새만금과 전북에서 그린뉴딜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서약한 민주진보 진영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만금이 전북 도민의 권리가 될 때까지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2025년 전북 정치혁신으로 경쟁적 정당체계 확립의 기틀을 다지겠다”며 “2025년은 전북 정치 혁신의 해가 될 것이며, 2026년 지방선거는 전북의 정치 지형을 경쟁적 정당체제로 확립하는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형 사회권 실현을 위해 사회권을 확보하는 정책을 개발해 차기 공약으로 제시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사회권 선진도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도당은 “전북민의 특별한 긴급 민생지원대책이 최대한 빠르게 시행되도록 하겠다”며 내란회복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2025년은 광복 80주년이자 전북 정치 혁신의 원년”이라고 말하며,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지역에 침의적 상상을 불어넣는 쇄빙선이 되어 더 빠르고 강력하고 선명하게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기자회견의 질의 응답에서 정 위원장은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지역위원회 체계를 가동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시군에서 모두 자당 후보를 내서 기초 광역의원 30% 당선과 자치단체장 3곳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 주목받았다. /이만호 기자

“민생 안정·도민안전관리 강화 총력”

김관영 도지사, 새해 첫 간부회의 열고 주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3일 새해 첫 간부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도민 안전관리 강화”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설 명절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으며 “모든 도민이 설 명절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 대해 빈틈없이 지원해달라”고 강조하며, 의료서비스,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소비 심리 회복과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 촉진을 위한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도 계획대로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많은 눈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선제적 대응에도 일부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있는 만큼 신속하게 복구를 지원하고 남은

동절기 기간에도 현재와 같이 사전 선제 조치를 통해 대설 및 한파에 따른 도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태세를 철저히 유지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AI 확산 위험성이 높은 상황임을 언급하며, “AI 발생 농가와 인접 지역에 대해 신속하게 방역 조치를 하고, 가금농장과 취약지역 및 철새 도래지 등에 대한 소독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8일부터 중앙부처에서 업무보고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철저히 분석해, 이를 우리 도의 정책 추진에 반영해 도정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 진행된 올림픽 후보지 선정 현장실사에서 평가위원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공감을 얻었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라며, 향후 심사 일정에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또한, “도민의 공감과 지지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불법 활동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익산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최...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가 13일 2025년 새해 첫 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22일까지 10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동인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김경진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시장의 밑그림을 그려보는 중요한 회기”라면서 “올해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민들의 입장에서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살피고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의회는 올해 사자성어로 ‘배우 공경하여 사사도움이 없다’는 의미의 ‘대공무사(大公無私)’를 선정했다. 익산시의회 의원들은 언제나 시민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더 듣고 더 뛰겠다”고 전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오임선 의원은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하는 익산시의 예산 변경 집행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김순덕 의원은 익산시 식품관광 산

업도시로 도약을 위한 집중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조남석 의원은 용동면 고창마을 내 상습침수지역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손진영 의원은 동부시장 재건축 지연 문제 및 생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김경진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시장의 밑그림을 그려보는 중요한 회기”라면서 “올해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민들의 입장에서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살피고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의회는 올해 사자성어로 ‘배우 공경하여 사사도움이 없다’는 의미의 ‘대공무사(大公無私)’를 선정했다. 익산시의회 의원들은 언제나 시민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더 듣고 더 뛰겠다”고 전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오임선 의원은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하는 익산시의 예산 변경 집행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김순덕 의원은 익산시 식품관광 산

‘작은 승리 넘어 더 큰 승리로’... 더민주 전북혁신회의 2기 출범식

도내 최대 친명 조직으로 알려진 더민주전북혁신회가 출범식을 갖고 ‘작은 승리를 넘어 더 큰 승리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내란 종식과 정권교체의 결의를 다졌다. 이번 출범식은 내란으로 대신 시계가 빨라지는 상황에 대비한 조치 결속과 확대를 결의하는 행사가 됐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출범식은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전북대학교 국제컨

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출범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서거석 교육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 한병도 국회의원, 이성은 국회의원, 박희승 국회의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방용승 공동상임대표와 함께 허태정전 대전시장, 유동철 공동상임대표 등 정계와 한상열 목사, 이석환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비롯한 시민사회, 종교계 대표, 전북혁신회의 대표단, 14개 시군혁신회의 대표단, 상임위원, 혁신위원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전국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 도지사, 교육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국회의원, 시군 단체장, 종교계 인사 등의 현장 축사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의 축하 영상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축전

도 전해졌다.

이어 윤석열 퇴진 투쟁다짐 영상상영과 함께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 파면과 내란 동조 국민의힘 즉각 해체를 담은 피켓 세례모니로 1부 행사를 마치고, 2부 혁신공동회(전북혁신회의 총회), 3부 강위원 더민주혁신회의 상임고문의 정치강연으로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출범식을 마무리 했다.

/이만호 기자